



〈새참 - 풍경 57〉캔버스에 유채 100×153cm 2026

임노식

LIM Nosik

임노식은 전통적인 회화의 감각을 동시대적 조형 언어로 확장해 왔다. 한 장소에 축적된 시간과 기억,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화면 안에 중첩시키는 방식으로 풍경의 의미를 탐구한다. 특히 고향의 풍경을 작업의 출발점으로 삼아, 그곳에서 살아가는 가족과 가족이 떠나고 남은 노인, 이주한 외국인 노동자, 장례문화 등 남아있는 농경사회 삶의 모습을 관찰하고 이를 회화적 장면으로 전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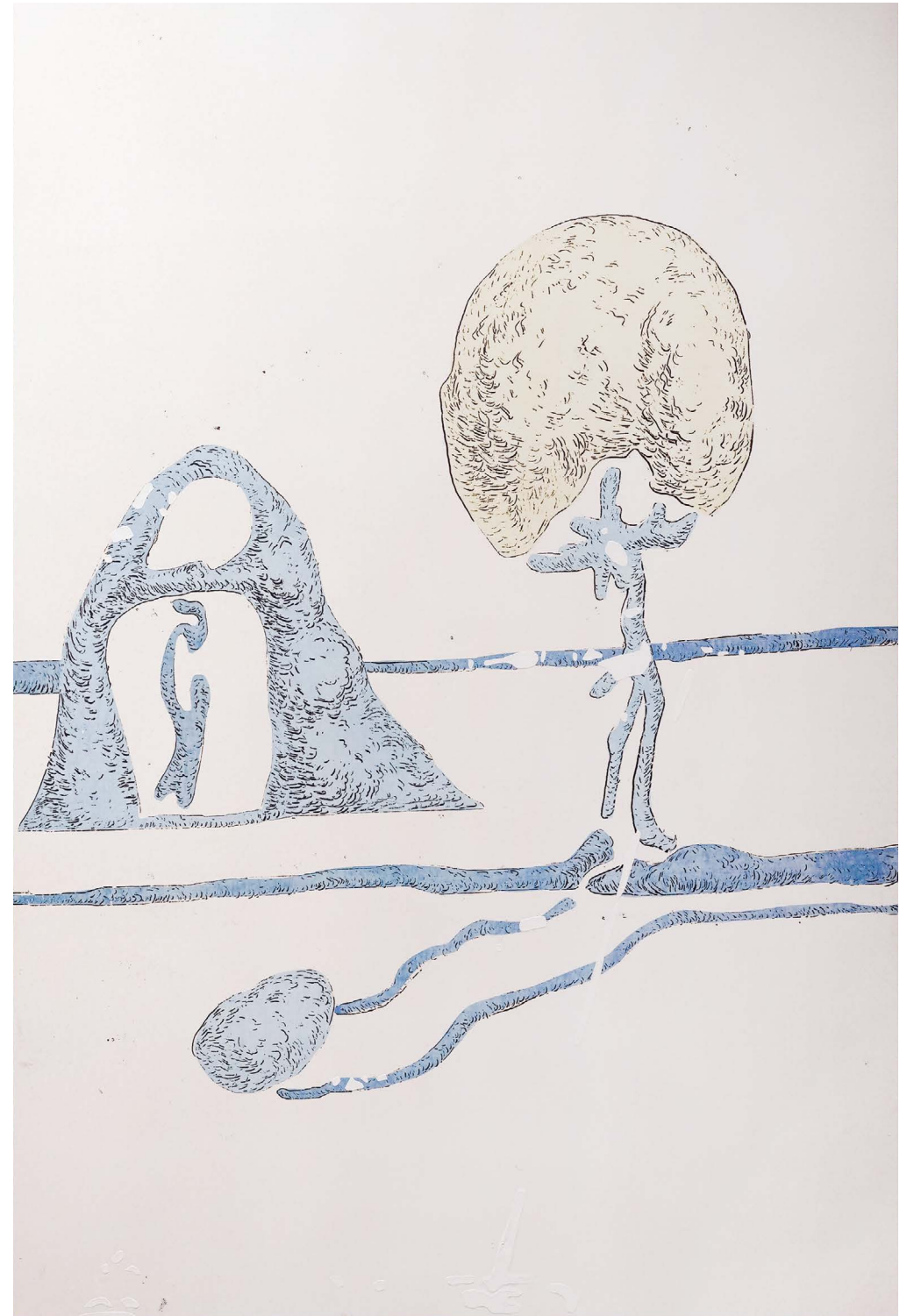
최근 작업에서 두드러지는 조형적 특징은 ‘덩어리’의 형성이다. 초기의 들꽃이 각각의 형태와 간격을 유지하면서 화면을 구성했다면, 최근에는 꽃과 잎, 줄기와 뿌리가 서로의 영역으로 파고들며 하나의 복합적인 형상을 만들어낸다. 인물 역시 개별 신체의 윤곽을 명확하게 드러내기보다 서로 포개지고 얹히는 방식으로 표현된다. 이 과정에서 화면은 개별 형상을 보여주는 공간에서 서로 다른 존재가 관계를 맺고 영향을 주고받는 상태를 시각화하는 공간으로 변화한다.

그의 회화에서 ‘막’은 이러한 관계와 시간의 중첩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조형 장치다. 서로 다른 대상과 장소에서 수집한 이미지와 서사를 한 화면 위에 겹쳐놓고 연결하면서, 동시에 개별 형상의 윤곽을 흐리게 만든다. 이전 작업에서 화면 전체를 균일하게 덮었던 막은 최근작에서 여러 구간으로 나뉘어 반복적으로 중첩된다. 이에 따라 화면의 영역마다 투명도와 밀도가 달라지고, 형상은 선명하게 드러나는 부분과 희미하게 가려진 부분 사이를 오간다.

홍익대 동양화과를 졸업하고 한예종 조형예술과 예술전문사를 거쳐 2026년 홍익대 회화과 박사학위를 받았다. 취리히 소투, 스페이스 월링앤딜링, 금호미술관,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송은, 타데우스로팍, 에스더쉬퍼, 하이트컬렉션, 피닉 텔레그람폰아트, 일민미술관 등 국내외 기관의 기획전에 참여했다.

2026년 키아프 하이라이트 최종 작가 2인에 선정되었으며, 2025년 광주문화예술상 허백련미술상을 수상했다. 서울시립미술관, 경기도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OC미술관, 일민미술관, 아라리오컬렉션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이미지 제공: 아라리오갤러리



왼쪽 페이지 <GL87> 캔버스에 아크릴릭 91×60.5cm 2023
오른쪽 <GL93> 캔버스에 아크릴릭 91×60.5cm 2023



왼쪽 <꽃 - 풍경 59> 캔버스에 유채 153×90cm 2026
 오른쪽 페이지 <산딸기 - 풍경 74> 캔버스에 유채 100×70cm 2026

